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84차 CATI조사

제99차 ARS조사

101차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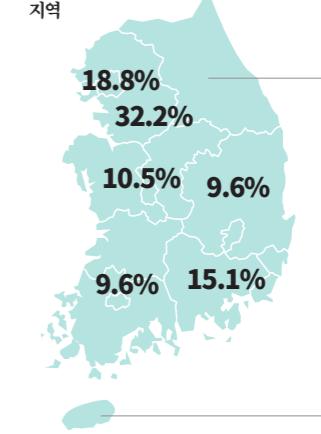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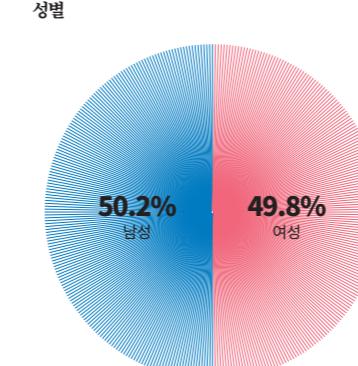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5.2	44.4	21.3	9.1
ARS	29.9	42.1	19.7	8.3
	● 진보	● 중도	● 보수	● 잘모름

CATI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기기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응답률	11.3% [총 통화시도 8,834명]
조사기간	2024년 9월 27일 ~ 9월 2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응답자
특성

전체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02	50.2	494	49.4
	여성	498	49.8	506	50.6
연령	18~29세	161	16.1	157	15.7
	30대	153	15.3	149	14.9
지역	40대	176	17.6	177	17.7
	50대	197	19.7	197	19.7
지역	60대	169	16.9	173	17.3
	70세이상	144	14.4	147	14.7
지역	서울	188	18.8	187	18.7
	인천·경기	322	32.2	320	32.0
지역	대전·세종·충청	105	10.5	107	10.7
	광주·전라	96	9.6	98	9.8
지역	대구·경북	96	9.6	97	9.7
	부산·울산·경남	151	15.1	149	14.9
지역	강원·제주	42	4.2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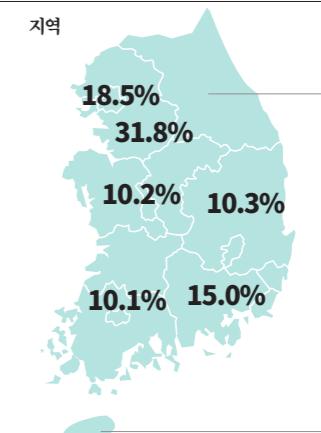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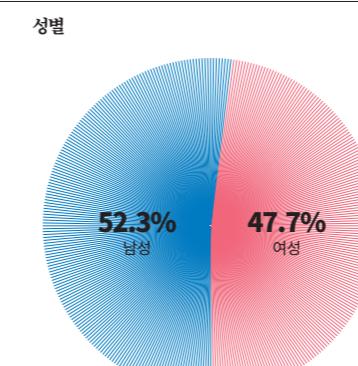


ARS 조사개요

모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000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8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림가중)
응답률	2.1% [총 통화시도 48,470명]
조사기간	2024년 9월 27일 ~ 9월 28일(2일간)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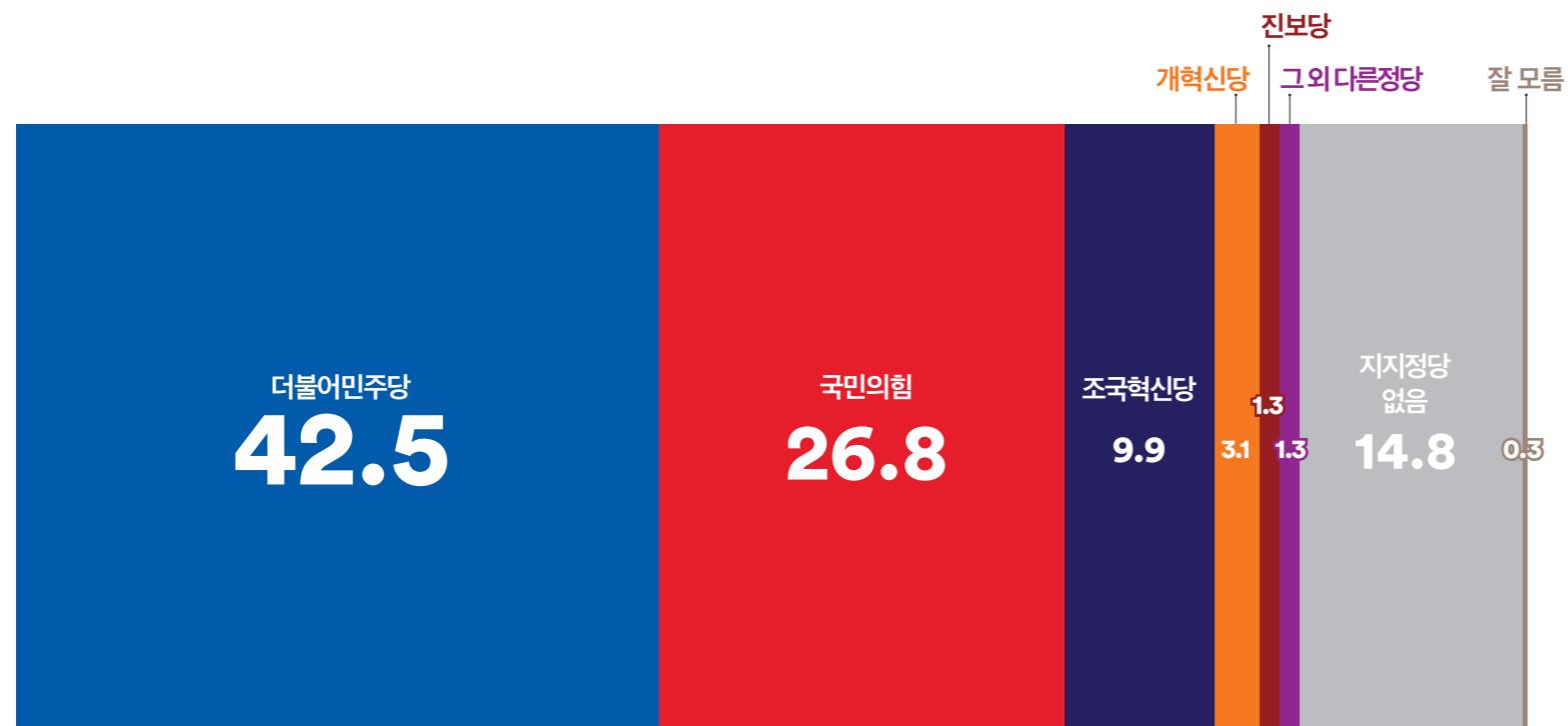
응답자
특성

전체	조사완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B/A)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523	52.3	494	49.4
	여성	477	47.7	506	50.6
연령	18~29세	112	11.2	157	15.7
	30대	137	13.7	149	14.9
지역	40대	191	19.1	177	17.7
	50대	214	21.4	197	19.7
지역	60대	188	18.8	173	17.3
	70세이상	158	15.8	147	14.7
지역	서울	185	18.5	187	18.7
	인천·경기	318	31.8	320	32.0
지역	대전·세종·충청	102	10.2	107	10.7
	광주·전라	101	10.1	98	9.8
지역	대구·경북	103	10.3	97	9.7
	부산·울산·경남	150	15.0	149	14.9
지역	강원·제주	41	4.1	4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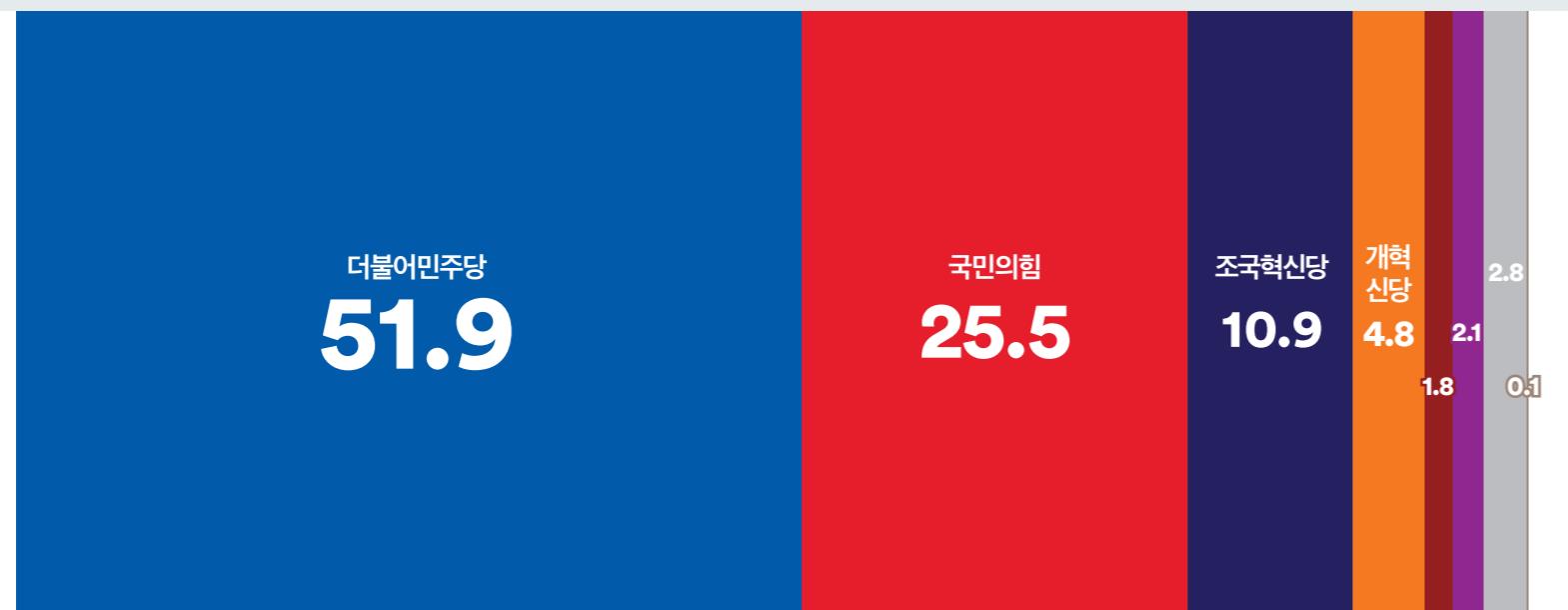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28.9	39.0	59.1	50.7	43.0	29.1
개혁신당	18.2	19.5	11.5	21.0	37.3	57.0
국민의힘	7.3	6.9	14.4	14.6	10.2	9.8
조국혁신당	7.1	10.8	10.8	8.2	10.2	9.8
그외다른정당	33.1	25.8	10.8	8.2	10.2	9.8
잘모름						

ARS



연령	18-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진보당	42.2	52.4	64.9	62.2	50.2	34.4
개혁신당	21.8	22.5	11.6	16.5	33.6	52.0
국민의힘	6.4	6.6	16.3	16.2	10.4	7.2
조국혁신당	10.3	8.2	16.3	16.2	10.4	7.2
그외다른정당	5.5	4.1	1.3	1.3	1.3	1.3
잘모름	9.6	9.6	9.6	9.6	9.6	9.6

83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0%p 상승, '국민의힘' 1.7%p 하락, '조국혁신당' 1.0%p 상승

98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8%p 상승, '국민의힘' 4.7%p 하락, '조국혁신당' 0.9%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15.7%p, ARS 26.4%p(지난 조사: CATI 11.0%p, ARS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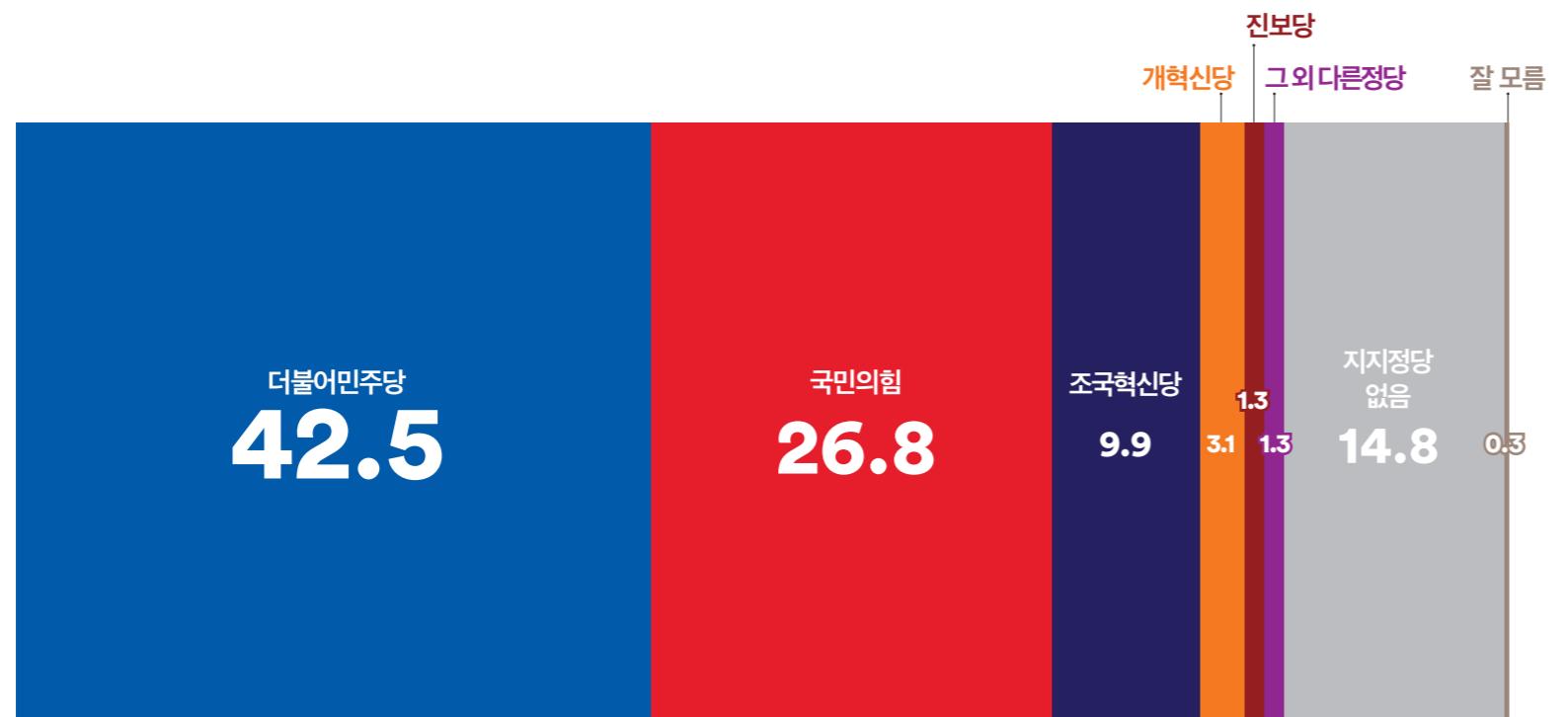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CATI 25.6%p, ARS 37.3%p(지난 조사: CATI 19.9%p, ARS 27.9%p)

진보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그외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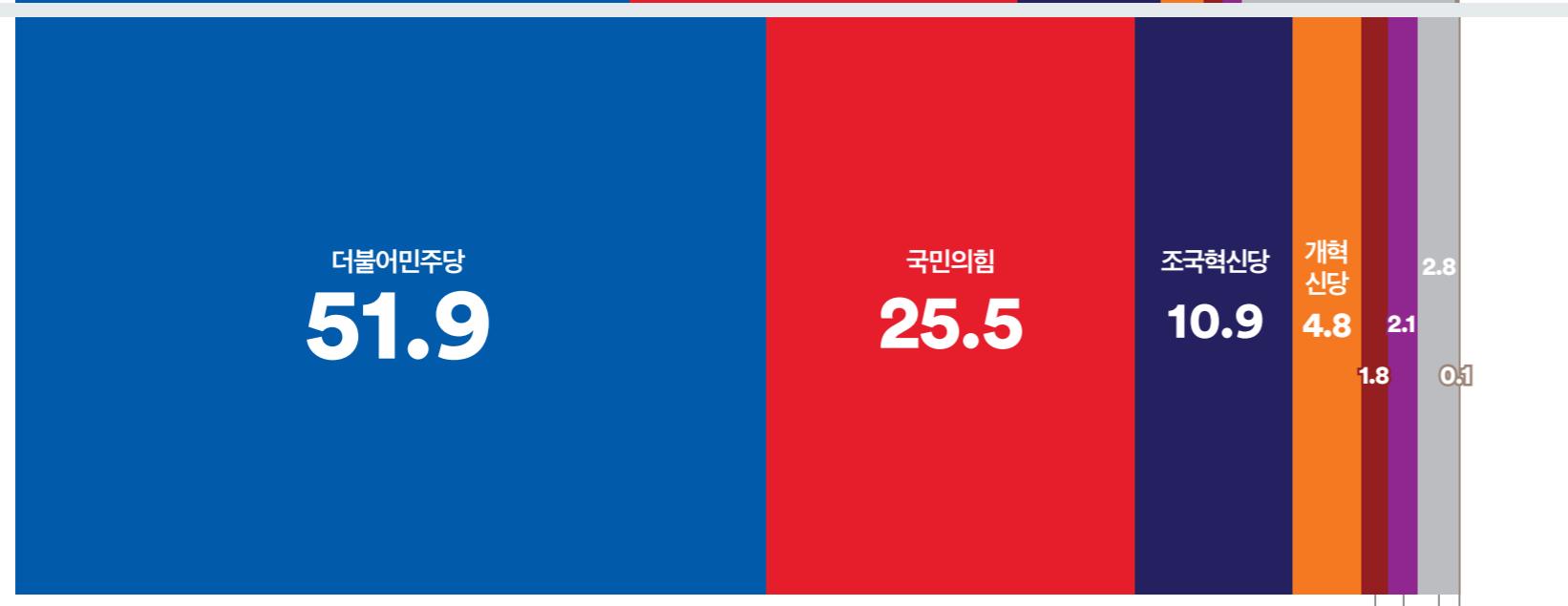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권역	CATI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	41.3	22.4	17.5	8.3	35.3	27.5
인천·경기	47.2					
대전·충청·세종	49.2					
광주·전라	56.4					
대구·경북	35.3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33.3					
성별	ARS					
성별	남성	여성				
남성	40.3	44.7	25.8	27.7	13.0	6.8
여성			13.7	15.9	7.1	9.5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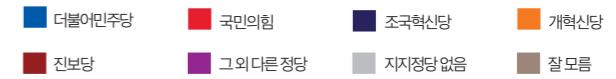
권역	ARS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권역	49.9	54.8	58.4	62.6	44.0	46.1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36.0					
성별	CATI					
성별	남성	여성				
남성	50.2	53.5	24.4	26.6	10.7	6.6
여성			11.1	11.1	5.5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경인권·충청권·호남권, ARS는 수도권과 충청권·호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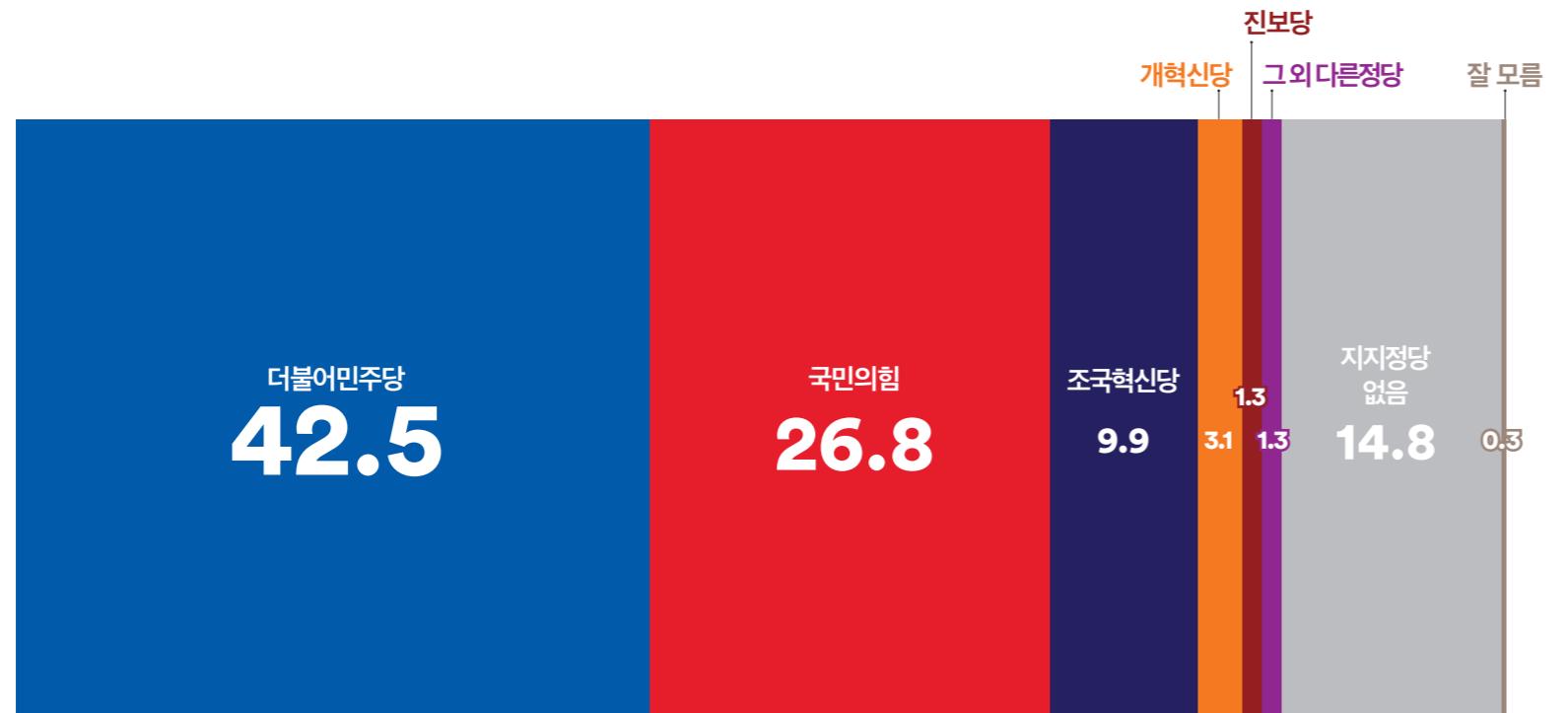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국민의힘' 우세, CATI조사의 30-50대,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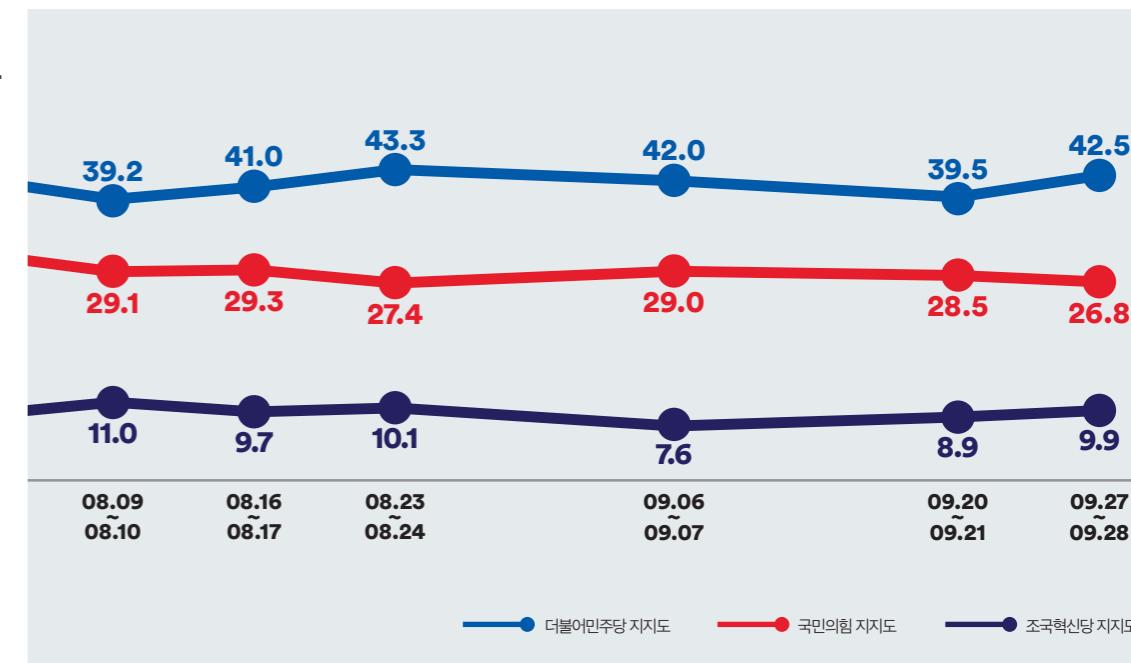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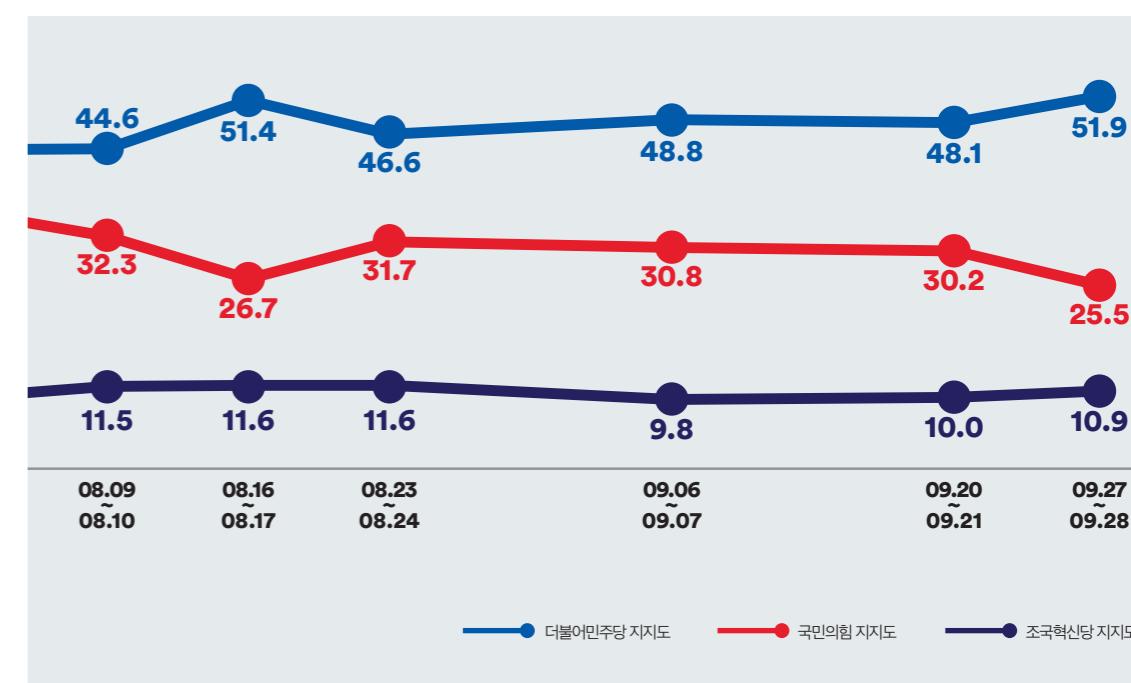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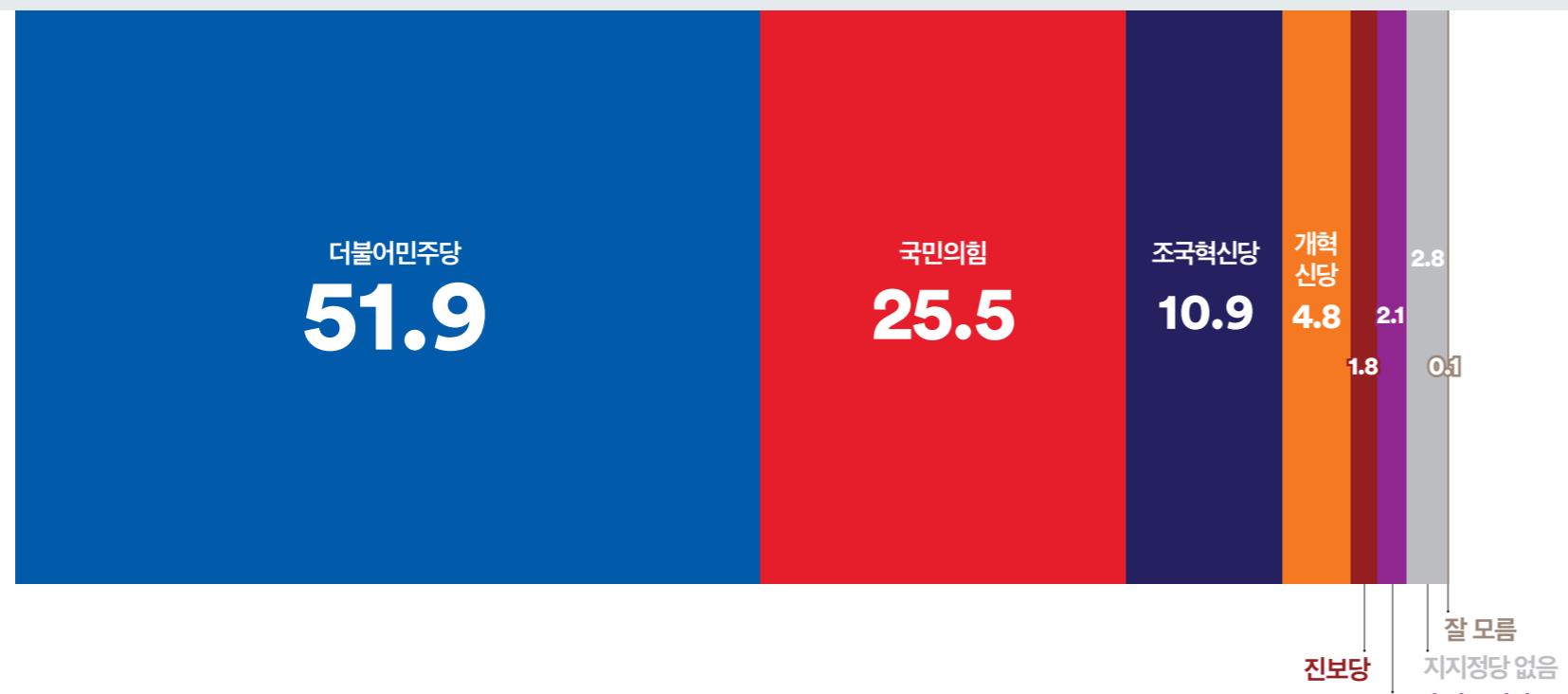
CATI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2.6%, '국민의힘' 21.6%, '조국혁신당' 11.4%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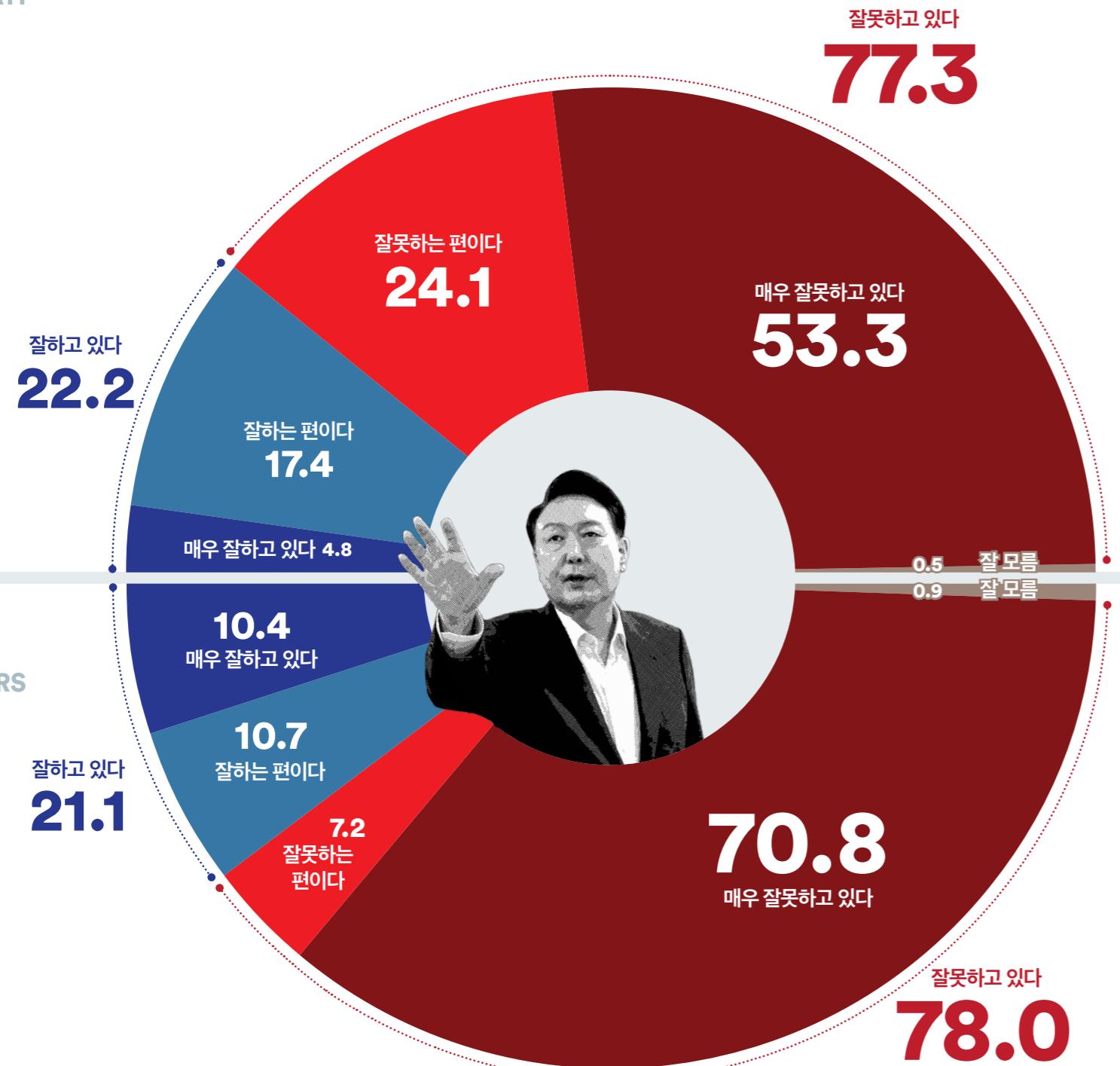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51.7%, '국민의힘' 20.7%, '조국혁신당' 15.0%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2.4%p(83차: 27.0%p), ARS 46.0%p(97차: 28.9%p)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외 다른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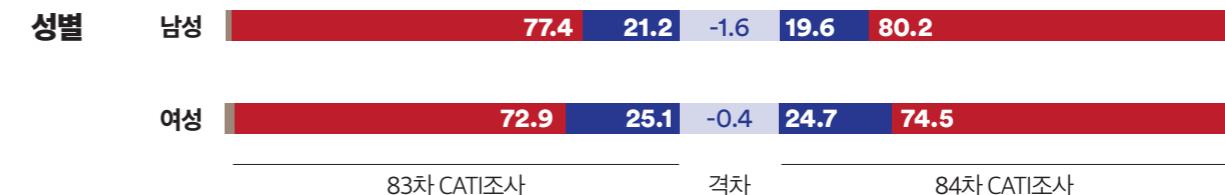


지난 83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0.9%p 하락, '부정' 평가 2.1%p 상승(격차 55.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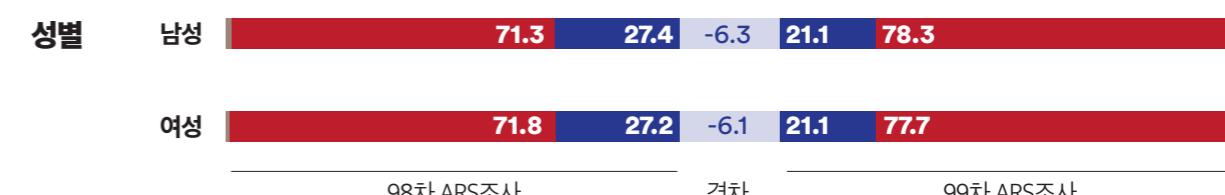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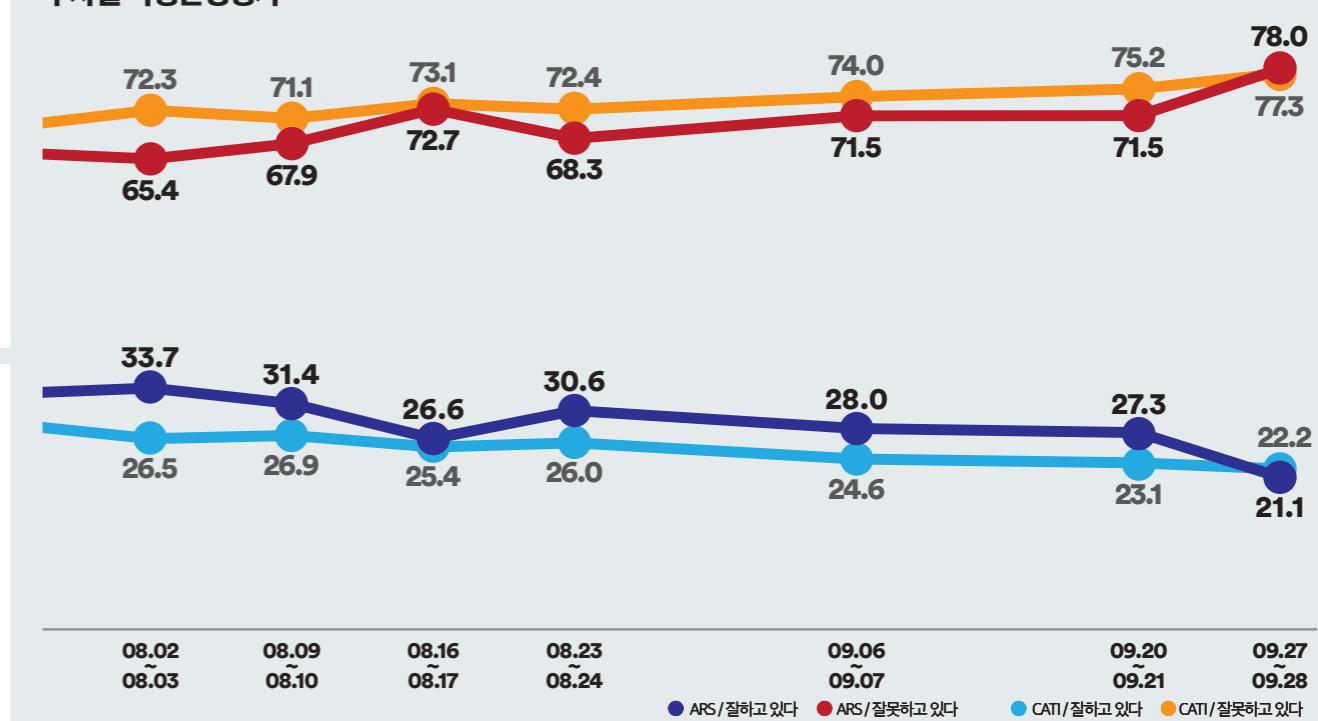
지난 98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6.2%p 하락, '부정' 평가 6.5%p 상승(격차 56.9%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에서도 '부정' 평가 앞선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63.7%p(지난 조사: 61.3%p), ARS 65.3%p(지난 조사: 4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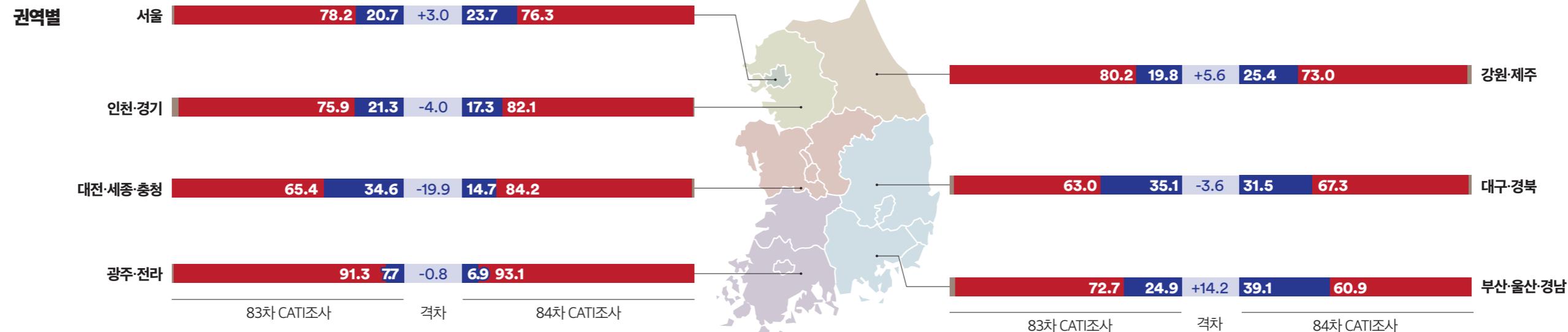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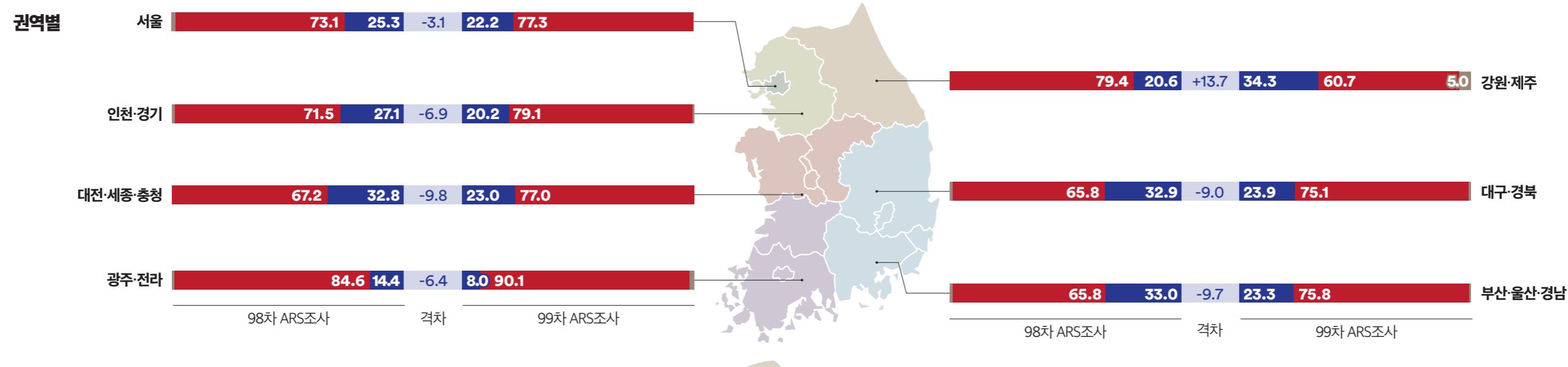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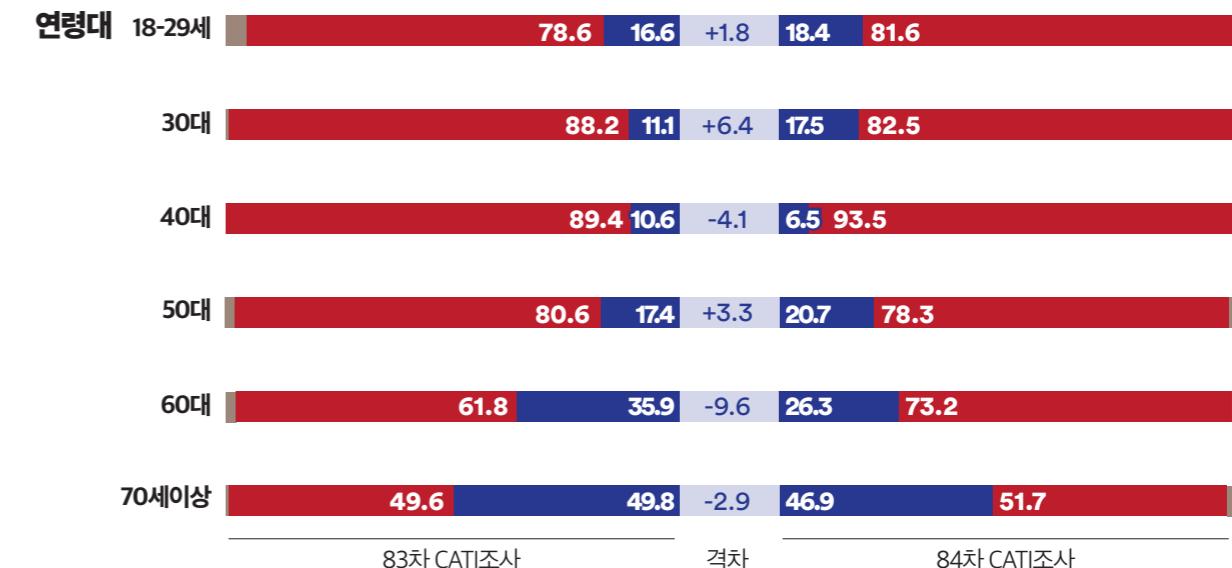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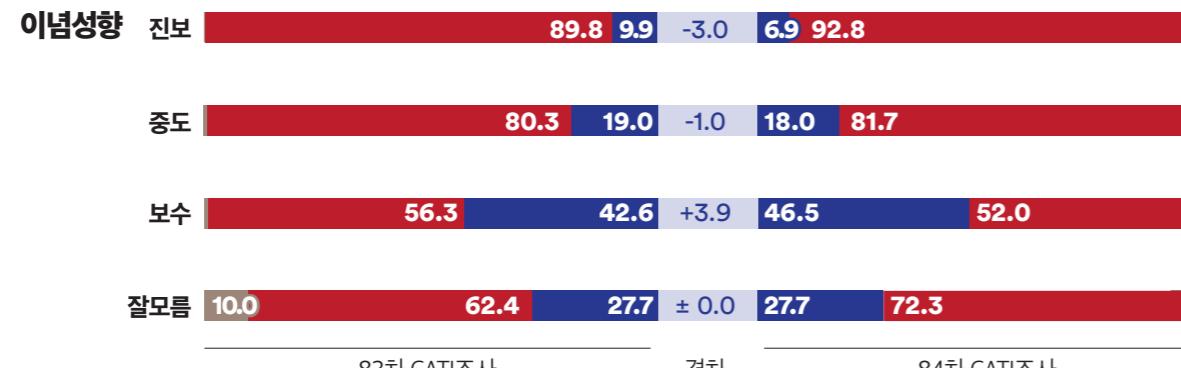


■ 격차 ■ 잘하고 있다 ■ 잘못하고 있다 ■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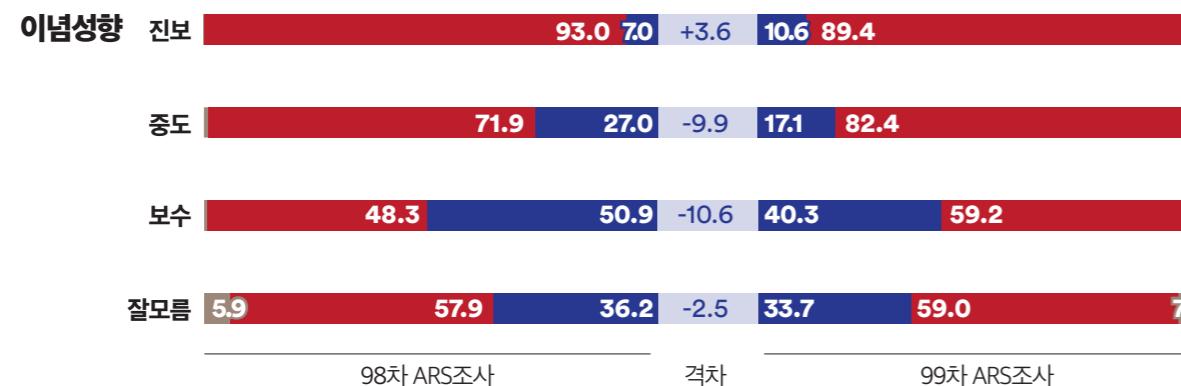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군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명태군 씨의 배후가 대통령 부부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대통령 부부일 것이다

51.2대통령 부부가
아닐 것이다**25.4**

잘 모름

23.4

ARS

65.3

대통령 부부일 것이다

17.7
대통령 부부가
아닐 것이다17.0
잘 모름

응답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명태군 씨의 배후에 대통령 내외가 있을 것이라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25.8%p, ARS 47.6%p)

'대통령 부부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CATI조사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과 ARS조사의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세

ARS조사의 강원·제주와 CATI조사의 TK, 강원·제주에서도 '대통령 부부일 것'이란 응답이 앞섰

CATI조사의 30~60대 응답층과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도 '대통령 부부일 것'이라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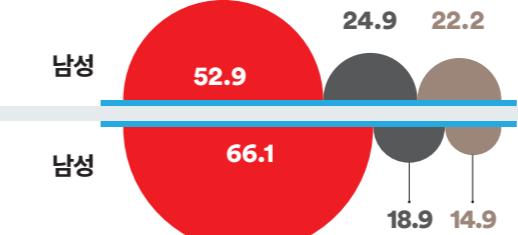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시기 - 2022년 5월 9일 통화			
오전 10시 19분			"Y가 대통령 이름 팔아 가지고 K가, 공관위 압박을 넣어 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려? 끝났어. XXX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니" "소문내면 안 돼요. 후보들 날리 날 겁니다. OOO 입 조심하라 하고,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후 4시 39분			"김영선 그 현수막, 이제 본선 후보잖아.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거든 문구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시기 - 2024년 2월 18일 통화			
오후 9시 38분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 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
[2024년 9월 19일 뉴스토마토에서 공개한 명태군 씨와 E씨가 통화한 녹취 파일 중]			

연령

18-29세	31.7	27.6	40.7
18-29 남성	22.2	37.0	40.8
18-29 여성	41.7	17.6	40.7
30대	52.0	19.5	28.5
40대	71.4	13.4	15.2
50대	66.4	24.0	9.6
60대	52.4	28.0	19.6
70세 이상	25.0	42.2	32.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77.8	7.4	14.7
국민의힘	8.2	65.4	26.4
조국혁신당	84.7	8.5	6.8
개혁신당	45.8	21.5	32.7
진보당	68.3	16.1	15.6
그외 다른 정당	72.9	19.9	7.2
지지 정당 없음	28.7	17.6	53.7
잘 모름	36.5		63.5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8.4	9.4
국민의힘	13.9	56.4
조국혁신당	86.1	9.5
개혁신당	52.9	17.4
진보당	74.7	12.5
그외 다른 정당	48.4	20.5
지지 정당 없음	53.0	6.6
잘 모름		40.5

■ 대통령 부부일 것 ■ 대통령 부부가 아닐 것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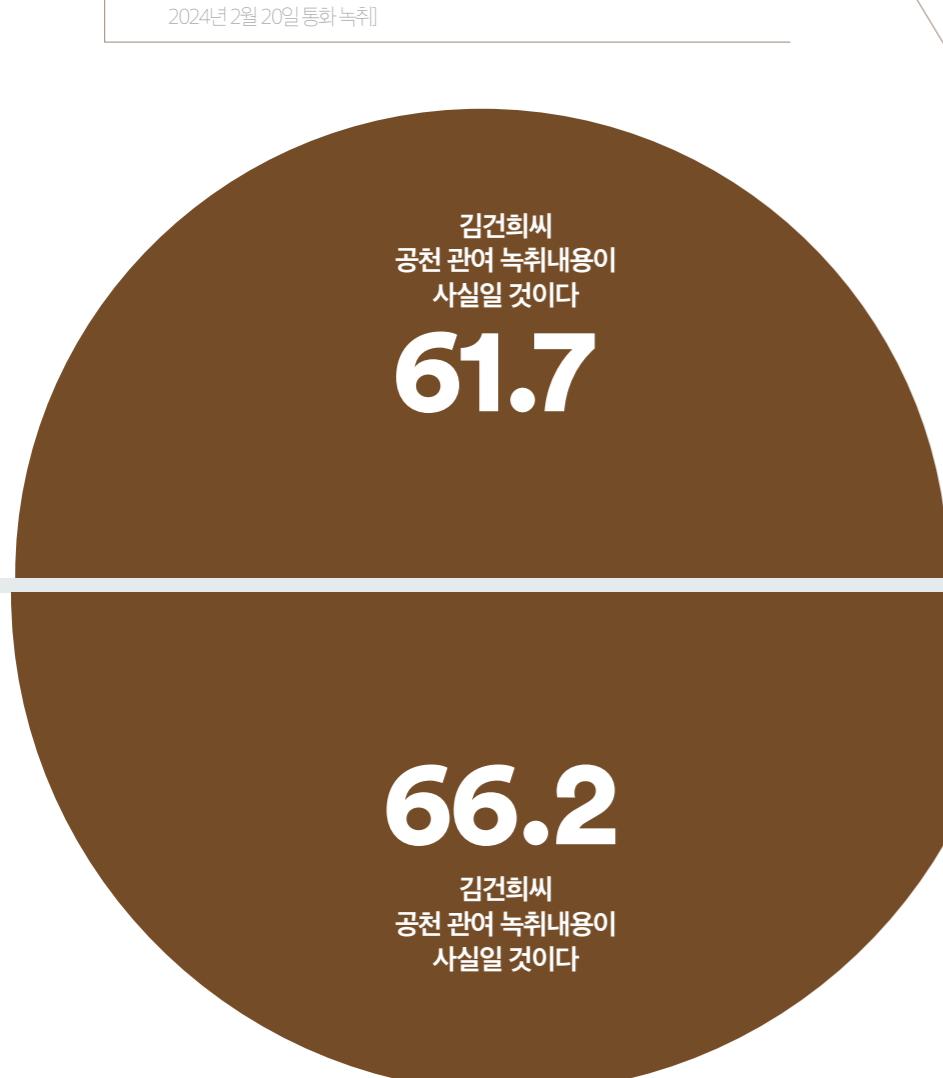
본 자료는 유료 구독자용 컨텐츠이므로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대통령배우자의 공천개입 주장 녹취

Q.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4년 총선 용인갑 공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이후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김건희 씨의 총선 공천 관여가 사실일 것이다'라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2.5%p, ARS 49.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성별 및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녹취 내용이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이 우세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두 응답이 팽팽하게 갈림

CATI조사의 보수층에서는 두 응답이 초박빙, ARS조사의 보수층에서는 '사실일 것'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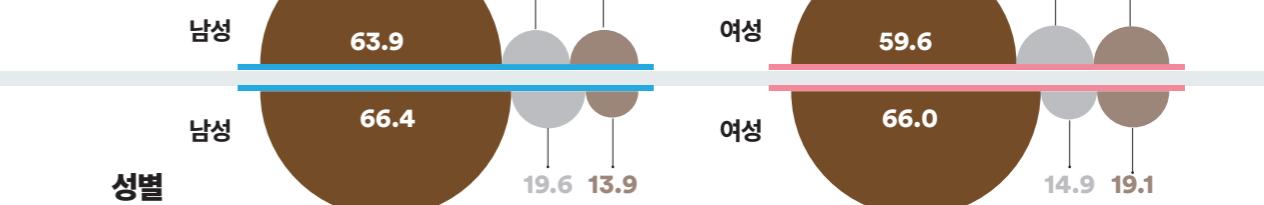
연령

18-29세	51.2	14.6	34.2
30대	68.0	14.7	17.4
40대	81.5	8.8	9.7
50대	72.0	20.9	7.2
60대	57.3	24.7	17.9
70세이상	34.0	32.7	33.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86.9	9.1
국민의힘	19.0	53.8
조국혁신당	91.9	5.1
개혁신당	56.1	14.7
진보당	68.3	24.1
그외다른정당	80.1	19.9
지지정당없음	46.1	10.6
잘모름	36.5	63.5

성별



권역

서울	62.8	21.9	15.3
인천·경기	66.9	17.2	15.9
대전·충청·세종	69.5	21.2	9.3
광주·전라	78.1	11.7	10.3
대구·경북	63.4	9.2	27.5
부산·울산·경남	64.4	14.1	21.5
강원·제주	52.9	29.3	17.8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0.6	5.8
국민의힘	12.1	49.3
조국혁신당	87.3	6.6
개혁신당	61.9	13.5
진보당	64.6	25.2
그외다른정당	48.4	13.5
지지정당없음	49.4	22.6
잘모름	100.0	

■ 김건희씨 공천관여 녹취내용이 사실일 것
■ 김 전 행정관이 부인한 것이 사실일 것
■ 잘 모름

같은 사건 다른 처분

Q.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김건희 씨에게는 불기소를 권고했던 수사심의위원회와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검찰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관련법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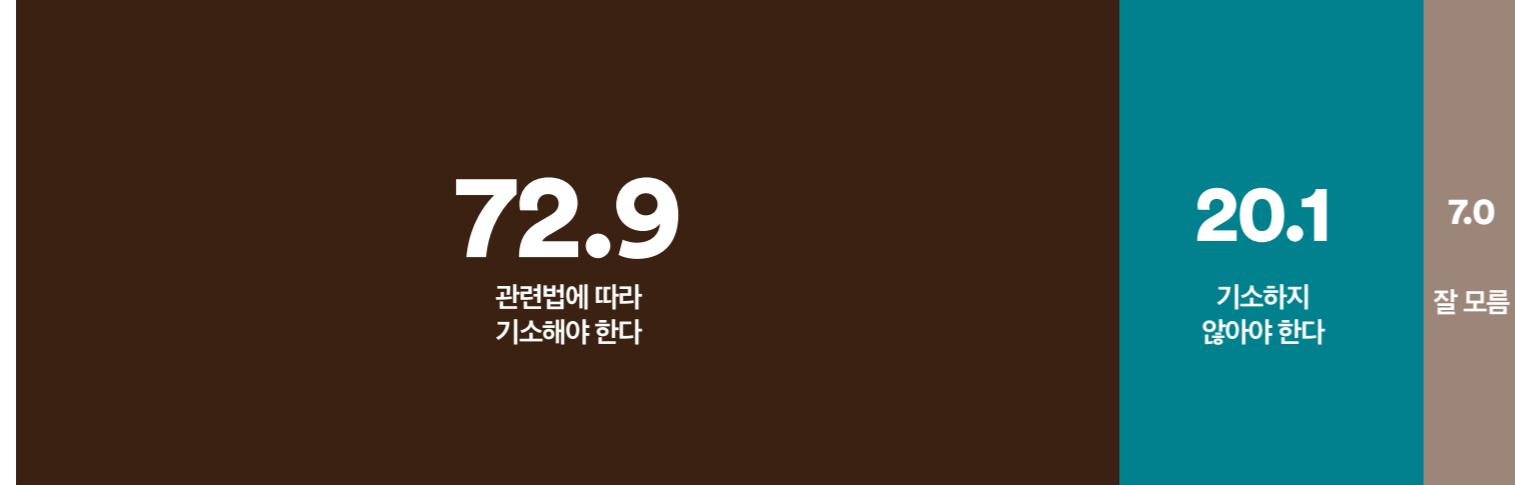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20.0

잘 모름

5.9

ARS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명품백 청탁 사건에 관해 '김건희 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54.1%p, ARS 52.8%p)

모든 권역과 성별 및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CATI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총과 보수총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고, ARS조사의 70대 이상은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

ARS 보수총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우세 (기소해야 한다 56.4%,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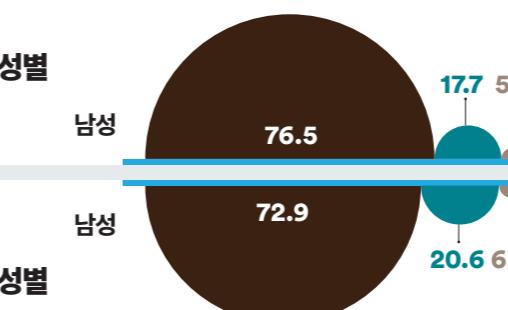
권역

서울	72.6	21.6	5.8
인천·경기	79.1	14.0	6.9
대전·충청·세종	76.8	17.6	5.6
광주·전라	82.1	13.7	
대구·경북	69.1	23.6	7.2
부산·울산·경남	61.4	32.7	6.0
강원·제주	74.6	25.4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3.4	5.2	
국민의힘	35.5	57.8	6.7
조국혁신당	94.1		
개혁신당	86.9	6.4	6.7
진보당	100.0		
그외 다른 정당	78.2	14.6	7.2
지지 정당 없음	70.9	10.4	18.7
잘 모름	24.3		75.7

성별



연령

18-29세	73.8	16.0	10.2
18-29 남성	67.8	17.0	15.2
18-29 여성	82.8	14.6	
30대	73.8	21.0	5.2
40대	86.4	9.5	
50대	82.3	14.1	
60대	68.2	23.9	7.9
70세 이상	47.8	39.8	12.3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3.1	5.6	
국민의힘	25.7	56.9	17.3
조국혁신당	87.8		9.5
개혁신당	78.3	6.1	15.6
진보당	78.5		17.0
그외 다른 정당	49.0	35.8	15.1
지지 정당 없음	78.6	6.4	15.1
잘 모름	100.0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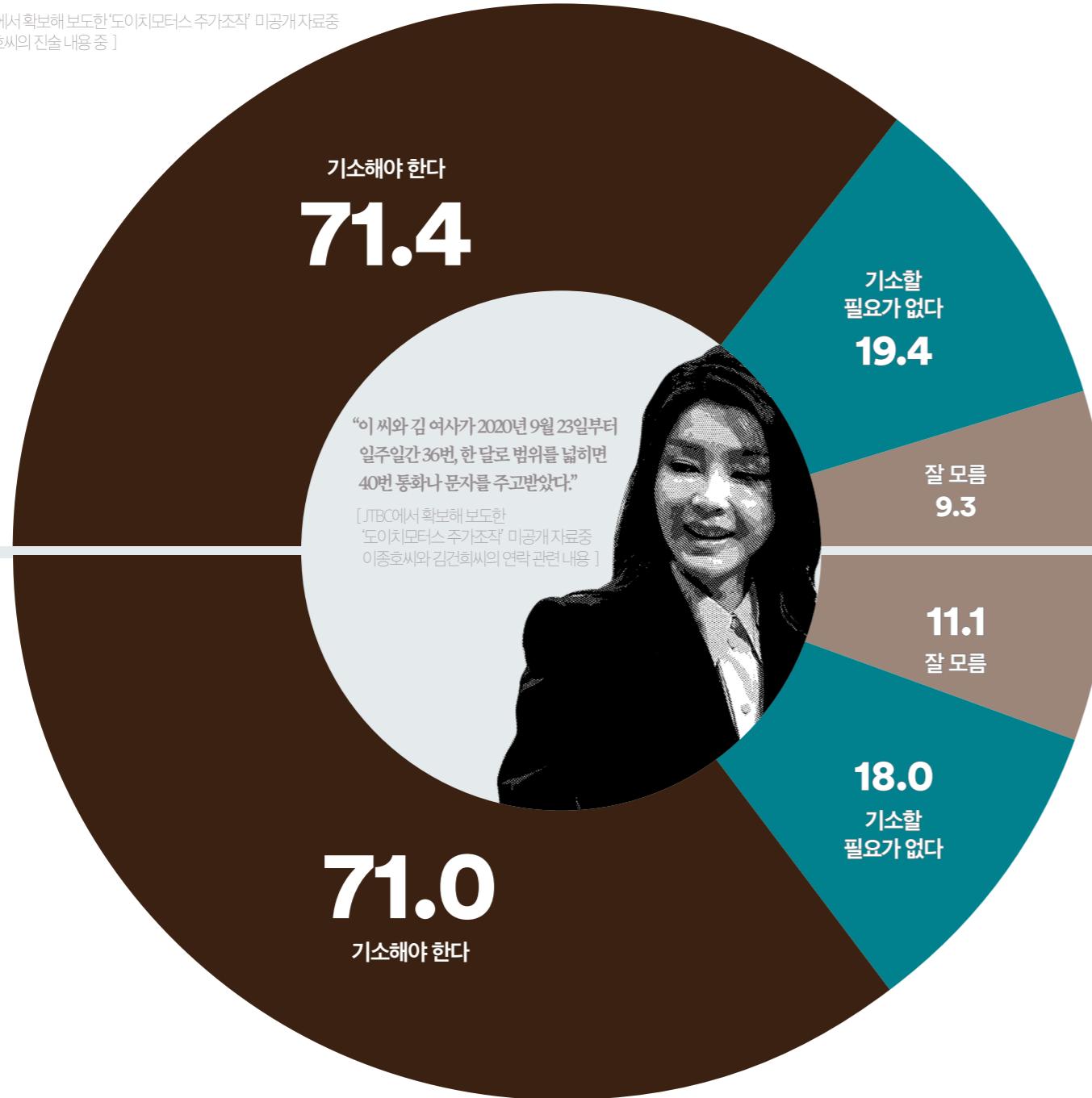
■ 기소해야 한다 ■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 잘 모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

Q.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씨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2020년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나, 주가조작 공범 김 모 씨의 편지에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등 새로운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씨 검찰 처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빼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JTBC에서 확보해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2차주포' 김씨의 편지 내용 중]

“김 여사는 내(이종호)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
[JTBC에서 확보해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미공개 자료 중
이종호 씨의 진술 내용 중]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 '김건희 씨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응답간 격차: CATI 52.0%p, ARS 53.0%p)
모든 권역과 성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 우세(CATI 조사의 70세 이상 응답층만 팽팽하게 갈림)

보수층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CATI조사에서는 앞서고 ARS조사에서는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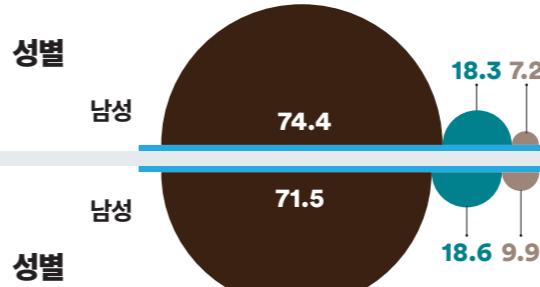
연령

18-29세	67.5	12.6	19.8
30대	78.5	9.2	12.3
40대	91.9		6.3
50대	80.8		17.7
60대	63.1	30.4	6.5
70세이상	40.5	41.9	17.6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5.4		
국민의힘	26.1	60.7	13.2
조국혁신당	95.4		
개혁신당	71.3		15.9 12.8
진보당	83.9		8.5 7.6
그외 다른 정당	92.5		7.5
지지 정당 없음	66.5		8.7 24.8
잘 모름			100.0

성별



권역

서울	68.0	20.6	11.5
인천·경기	72.1	19.0	8.9
대전·충청·세종	72.8	16.6	10.6
광주·전라	81.0	8.7	10.3
대구·경북	68.5	14.6	16.9
부산·울산·경남	69.7	19.1	11.2
강원·제주	58.3	27.2	14.5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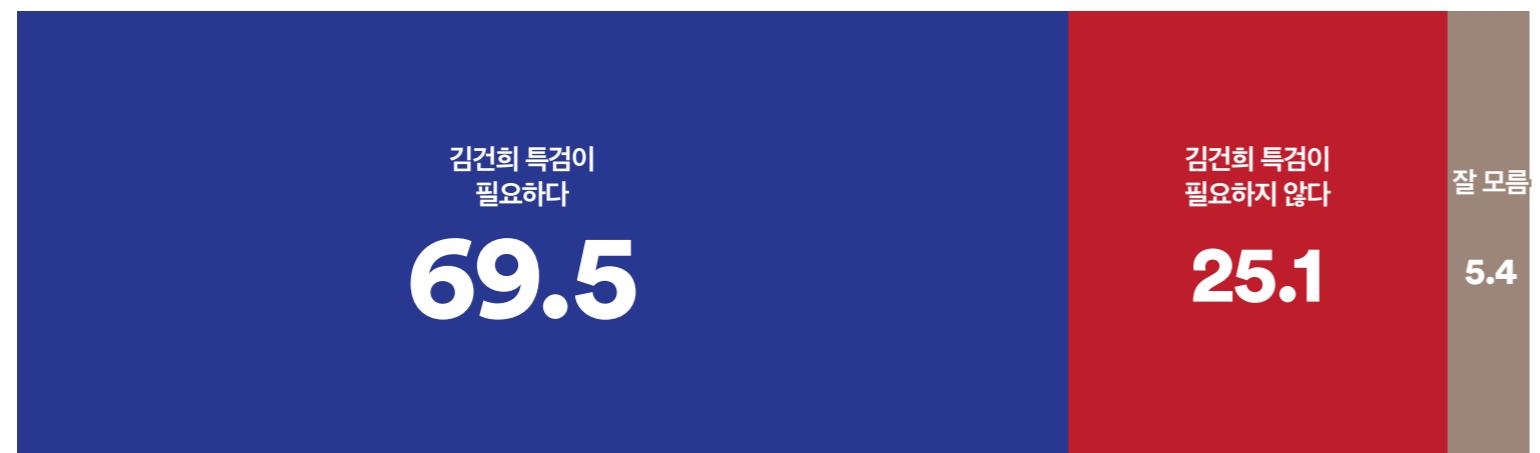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93.8		
국민의힘	18.0	56.2	25.8
조국혁신당	91.1		5.3
개혁신당	68.7		12.7 18.6
진보당	70.3		17.0 12.7
그외 다른 정당	49.0	30.7	20.3
지지 정당 없음	70.7		11.1 18.2
잘 모름			100.0

김건희 특검법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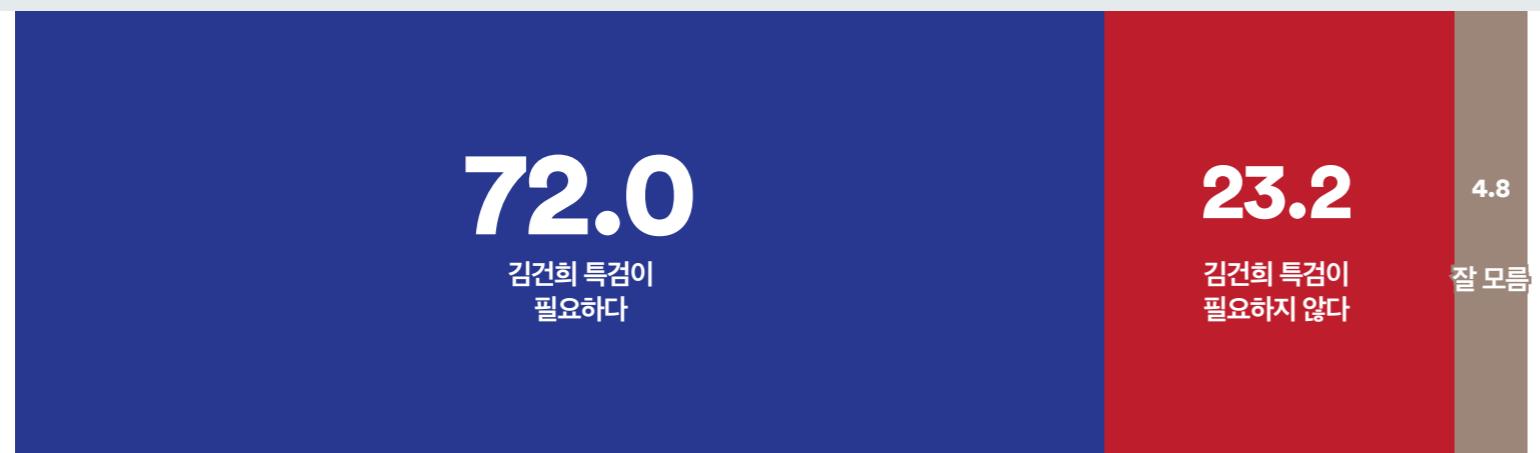
Q. 소위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특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RS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이 필요한가에 대해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44.4%p, ARS 48.8%p)

대부분의 권역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고 CATI조사의 PK와 강원·제주, ARS조사의 강원·제주에서는 앞섬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층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우세

특히 40대의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CATI에서는 90.5%, ARS에서는 87.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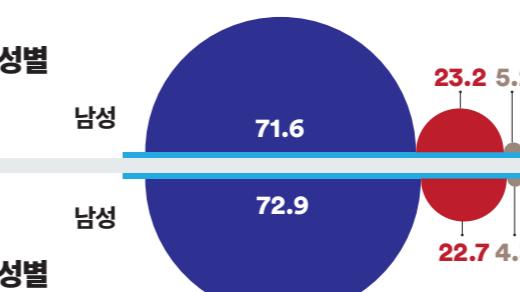
권역

서울	65.0	28.8	6.2
인천·경기	75.0	19.0	6.0
대전·충청·세종	78.9	16.5	4.6
광주·전라	90.4	8.2	1.4
대구·경북	57.8	35.4	6.8
부산·울산·경남	55.1	40.0	4.9
강원·제주	54.0	38.9	7.1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4.7	3.2	2.1
국민의힘	21.2	72.8	6.0
조국혁신당	98.1	0.0	1.9
개혁신당	67.5	22.9	9.6
진보당	68.3	24.1	7.6
그외다른정당	85.1	14.9	0.0
지지정당없음	65.4	19.2	15.3
잘모름	36.5	63.5	0.0

성별



연령

18-29세	63.8	23.8	12.3
30대	77.8	17.8	4.4
40대	87.2	11.3	1.5
50대	82.6	16.9	0.5
60대	66.4	29.8	3.8
70세이상	49.1	42.9	8.0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95.4	3.2	1.4
국민의힘	17.9	72.9	9.2
조국혁신당	92.2	0.0	7.8
개혁신당	70.5	15.9	13.6
진보당	82.9	11.8	5.3
그외다른정당	45.8	36.2	18.0
지지정당없음	67.2	17.8	15.1
잘모름	100.0	0.0	0.0

■ 특검이 필요하다 ■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0_01

